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오늘 예배 후 중고등부실에서 상반기 새교우 환영회가 열립니다.

단양의 친환경 마늘을 예약 판매합니다. 2kg 25,000원, 3kg 35,000원, 4kg 45,000원입니다. 6월 말까지 예약 받고 7월 중순에 판매합니다.

여름철 적정 냉방온도는 몇 도일까요? 26℃입니다. 너무 낮은 냉방온도는 냉방병의 원인이 됩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며 건강과 자연을 함께 지키시기 바랍니다.

왕상 21:1~21a / 시 5:1~8 갈 2:15~21 / 눅 7:36~8:3

레 26:3-13

식 당 봉 사 : 강순배 신영신 김미현 김진선 김연실 김명순 김재환
다음 주 식당봉사: 최경미 공재량 강금연 박윤숙 김선영 이오복 이기분 조장형
오늘설거지봉사 : 4남선교회 7여선교회
다음 주 설거지 : 이종배 고정림 김용훈 조희선 오지은
새 교 우 : 임성은 박진숙 김상진 박지연 황재모 강지선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 태양이 뜨거움을 더해가는 이 절기에 우리의 영혼도 태양처럼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걱정과 불안, 미움과 설움 다 떨쳐내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 그 하나를 위해 뜨겁게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남과 북,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자리를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서로를 향해 날 선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평화라는 대의를 이루기 위해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를 갖추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정길 최숙화 김주영 김필순 김현동 오유경 문홍일 박규석 박경원
 박창운 허정운 배부례 송임희 양재성 오미경 오진훈 노순옥 이광섭
 이예서 이우원 옥귀희 이윤석 박안수 이한림 김명희 이호원 임성은
 정연희 정우선 정현모 조순덕 최다미 최철수 광권희 추현영 한상경
 허준호 홍선희

감사헌금

강순배 김대규 박경애 김만균 노성희 김원중 김정진 김혜정 김현동
 임용한 이부곤 차혜심 홍성식 이유리 무명8

생일감사헌금

최미자

녹색꿈헌금

박호규 강영님 안종일 정현주 오재형 임고운 이나단 이영순 무명7

장	혜	숙	백	혜	숙	송	임	희	박	영	희
노	순	옥	박	성	희	이	준	림	김	윤	수
김	재	흥	최	경	미	김	재	흥	임	정	자
장	영	숙	신	영	신	문	영	혜	최	종	미
정	경	례	진	정	숙	이	봉	배	정	경	례
박	홍	재	광	권	희	광	권	희	김	순	복
권	미	숙	박	미	영	권	미	숙	허	정	윤
이	순	정	김	금	순	김	금	순	이	봉	옥
이	형	숙	윤	수	진	김	재	광	이	정	은
안	홍	숙	오	현	정	김	명	희	이	영	선
정	영	선	서	정	순	김	송	양	정	영	선
박	혜	경	조	향	미	조	향	미	정	영	창
김	재	흥	오	자	영				임		
이	범	석	이	근	식						
신	진	식	곽	상	준						
장	영	숙	김	세	진						

마음으로 읽는 글

상처가 희망이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으라
상처 없는 희망은 없으라

네가 가장 상처받는 지점이
네가 가장 욕망하는 지점이니

그대 눈물로 상처를 돌아보라
아물지 않은 그 상처에
세상의 모든 상처가 비추니

상처가 희망이다

상처받고 있다는 건 네가 살아 있다는 것
상처받고 있다는 건 네가 사랑한다는 것

순결한 영혼의 상처를 지닌 자여
상처 난 빛의 가슴을 가진 자여

이 아픔이 나 하나의 상처가 아니라면
이 슬픔이 나 하나의 좌절이 아니라면
그대, 상처가 희망이다

-박노해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삶이 흔들릴수록 마음을 고요히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선하신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기다리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수록 세상의 권세와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희망이십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으로만 영혼을 채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신앙의 요체 / 김기석 목사 기도 : 정영선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재훈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장혜숙 권사	이용현 선생 박두석 집사

6	영접위원	방문성 박병구 박규석 강순배 정경례 박경선
	헌금위원	윤석철 김금순

믿음으로 읽는 글

평화캠프 후기

... 동티모르 행을 결정하기 전, 고민을 많이 했다. 경비를 100% 지원하는 대기업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난무한 요즘, 개척자들의 캠프는 비행기 표부터 참가비까지 모두 자비를 들여야 했고, 캠프 참여 후에 나에게 끼칠 영향의 크기 역시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난 너무 지쳐 있었다. 스펙을 쌓아야 한다는 압박감, 예측 불가능한 인간관계, 조금씩 생기를 잃어가는 가족... 살아갈 이유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었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지, 내가 누구인지 알아냈다. 개척자들 특유의 존중과 우정 덕분인 듯하다.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에서 침낭 생활을 하느라 허리가 아픈 것쯤은 누워서 떡먹기였고, 휴지가 없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은 그보다는 좀 더 까다로웠지만 피하지 않았다. ... 세 시간 동안 연기를 마시며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몸은 고단했을지언정 정신적으로는 전혀 힘들지 않았다. 내 친구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데, 당연히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잠깐 들었던 거부감이 말끔히 사라지고 한순간에 적응해버렸다. “나 이런 경험도 했어~”라며 으스스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실제로 경험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허세 가득하고 유치한 그 마음은 속 사라졌다.

내 모습 또한 찾아냈다. 내 장점과 단점 모두 마치 제3자가 바라보듯 날 바라볼 수 있었다. 캠프에 함께한 동료들만큼은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성인이 되고 사회와 마주하며 고등학교 때와는 인간관계가 참 많이 다르게 형성된다고 입이 닳도록 푸념하던 어른들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세상에 대해 너무 많이 알아버려 서로 믿기보단 경계하고 가식으로 그 경계심을 덮어버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는 내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상대방의 판단에 따라 내

평가가 달라졌기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 모습을 맞추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내가 누군지 알 수 없었고, 남의 잣대에 날 끼워 맞추기엔 한계가 있기에 자신감 또한 잃게 되었다. 캠프 참가자들은 서로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일단 먼저 들어주고 이해하려 들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누가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모두가 그럴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해와 존중을 통해 난 내 마음과 몸이 시키는 대로 편안하게 행동하고 말했고, 그 결과 내 장점과 단점이 한꺼번에 튀어나왔으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됐고 조용히 성찰할 시간도 있었으니, 멀찌감치 서서 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었다. ...

이 정도로 원하는 것만 얻었어도 동티모르 행을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이보다 더 많은 걸 얻었으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 주변인들의 소중함,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 남에게 도움이 될 때 느끼는 가슴 벅참, 물욕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야 하는 이유 등등. 어느 나라에서 자랐건 밥을 몇 끼 더 먹고 털 먹었던 서로에게 마음만 열고 귀 기울인다면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새로이 느꼈다. ...

개척자들의 동티모르 평화캠프에서 얻은 또 다른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먼저 한 점 없는 완벽함을 얻기 위해 고통 받기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행복하게 살아가기이다. 완벽하게 동티모르에서의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 때 배운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도 남에게도 더 좋은 사람, 더 성숙한 어른이 되도록 조금씩 행복하게, 단,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싶다.

- 임소진, <개척자들> 소식지 중에서

- <개척자들>은 세계의 분쟁 및 재해 지역에서 평화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개척자들>의 평화활동 중에는 위에 소개한 것과 같은 ‘평화 캠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